

새로운 보육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하여



장 하 진
여성가족부 장관

세계화 시대 국가경쟁력 제고!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위한 선택! 21세기식 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세상의 절반인 여성의 참여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여성 자원의 잠재력과 특성을 고려한 성장이라야 가족과 사회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보장은 곧 가정생활과 직장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에서 출발합니다.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고 엄마가 일하는 동안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보육의 사회화와 공공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개인과 민간에게 주로 맡겨져 있던 보육책임을 국가가 분담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보육업무를 맡아 지난 1년을 험없이 달려왔습니다. 보육예산의 대폭 확대와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그리고 지원방법의 투명성을 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국민 여러분이 보육정책서비스의 최대 수혜자임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1만달러 수준에 머물고 있는

1인당 국민소득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머무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49.8%)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자녀가 있는 여성의 72.1%는 자녀양육과 가사로 인하여 취업을 못했으며, 기혼여성의 64.9%는 자녀양육 때문에 취업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M자형 노동곡선도 육아부담이 큰 데서 연유한 것이며, 지금까지 여성이 결혼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늘 안고 있는 숙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런 고민을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며, 해결책은 정부와 국민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성의 M자형 노동곡선도 육아부담이 큰 데서 연유한 것이며, 지금까지 여성이 결혼과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늘 안고 있는 숙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런 고민을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며, 해결책은 정부와 국민 모두가 같이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출산율 저하(합계출산율 1.19명)와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낳은 아이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보육문제는 국가적 문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 국가인적자원 개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며,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육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는 변동기에 있습니다.

먼저 부모의 보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보육료 지원 대상을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60% 계층까지 확대하였고, 장애아 보육료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가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현재 5%에 불과한 국공립보육시설을 '08년에는 전체 보육시설의 10%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보육시설의 질적 개선을 위한 평가인증제를

올해에는 1,000개 시설에서 시범시행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정책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보육교사의 전문성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보육

교사 국가자격증제를 도입하였으며, 시설별로 이루어졌던 종사자에 대한 경력관리를 시·군·구에서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처우를 개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공보육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미래가 달려있는 아이들을 건강하게 키우는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